

KIEP 기초자료
19-06

2019년 5월 24일

중·몽·러 경제회랑 추진 현황과 시사점: 몽골의 시각에서

정동연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dyjeong@kiep.go.kr, 044-414-1167)

1990-20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중·몽·러 경제회랑 추진 현황과 시사점: 몽골의 시각에서

요약

▶ 몽골은 내륙국으로서 해외시장과 연결되는 교통·물류 인프라 부족과 각종 무역장벽이 산업발전과 수출증대에 가장 큰 제약요인이며, 이에 주변국인 중국 및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인프라 개발과 산업발전을 달성하고자 3국간 경제협력 프로그램인 중·몽·러 경제회랑(CMREC)을 추진

- CMREC는 교통 인프라, 산업협력, 국경 통과지점 현대화, 에너지 협력, 무역·세관·검사·검역 협력 등 32개 프로젝트를 내용으로 함.

▶ CMREC는 교통 인프라와 에너지 협력 부문에서 일부 사업이 추진되는 등 성과를 보였으나, 전반적인 추진 속도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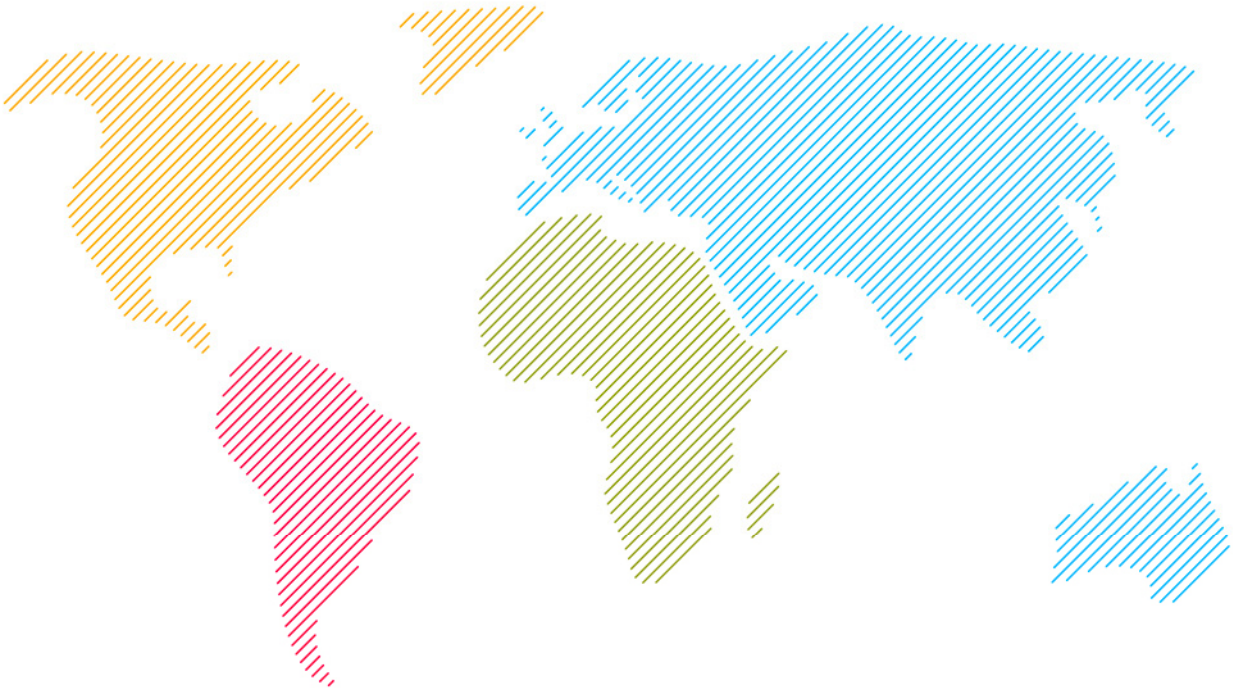
- 중앙 및 동부 철도회랑, 아시아 자동차 도로망의 일부 구간 건설이 추진되고, 송전망 및 가스관 건설 관련 논의에 진전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실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며, 물류·운송 관련 협정 실행이 지연되고 있음.
- 몽골이 러시아 및 중국 국경에 조성하고 있는 자유무역지대는 부족한 인프라와 미숙한 운영능력 등으로 제한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교통 인프라·에너지 부문 외 환경·생태보호·인도적 협력 등은 거의 추진되지 않고 있음.

▶ 몽골은 CMREC 추진을 위해 중·러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고 지속가능한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대중·대러 협력을 비광물산업 육성 및 경제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완화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음.

- 몽골 정부는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비광물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중국은 몽골의 최대 무역파트너이자 주요 투자국이나, CMREC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가 중국에 대한 몽골의 경제적 의존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짐.

▶ 우리 정부는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 및 몽골과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몽골 정부의 협력 수요를 고려한 협력방안 모색이 요구됨.

- 우리 정부는 중부권역(중앙아시아, 몽골)과 성장잠재력이 큰 자원개발 및 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경제 현대화 및 산업 다각화 정책을 고려하여 제조업, 농업 및 정보통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자 함.
- 몽골 정부의 산업협력 수요에 맞추어 농·목축업, 식품·경공업 분야 협력 확대를 고려해볼 수 있으며,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하는 등 중장기적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함.



차 례

1. 검토 배경

2. 중·몽·러 경제회랑 개요와 추진 현황
   가. 중·몽·러 경제회랑 개요
   나. 중·몽·러 경제회랑 주요 추진 현황

3. 몽골의 중·몽·러 경제회랑 추진 배경과 핵심과제
   가. 몽골의 중·몽·러 경제회랑 추진 배경
   나. 몽골의 중·몽·러 경제회랑 핵심과제

4. 시사점

참고문헌

1. 검토 배경

■ 몽골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자원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내륙국으로 해외시장과 연결되는 교통·물류 인프라 미비와 각종 무역장벽이 산업발전과 수출증대에 가장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 몽골의 GDP는 2017년 기준 114억 달러, 인구는 300만 명이며, 최대 산업은 광업으로 GDP의 23.6%를 차지함.[1)]
  - ○ 몽골은 세계적인 규모의 '타반 톨고이(Tavan Tolgoi)' 석탄 광산, '오유 톨고이(Oyu Tolgoi)' 금·구리 광산 등 다양한 유용광물을 보유하고 있고, 광물자원이 산업 총생산의 56%, 총 수출의 90%를 차지하는 등 산업 및 수출의 자원의존도가 매우 높음.[2)]
-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해상 교통 인프라가 부재하고, 넓은 영토 대비 적은 인구로 철도, 도로 인프라가 발전하지 못한 점은 몽골의 수출시장 확대 및 수출 증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 2018년 세계은행 물류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에 따르면 몽골의 물류성과점수는 2.37점(5점 만점)으로 160개국 중 130위 차지[3)]
- 몽골은 자원의존 경제에서 탈피하고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광업 외 수출산업 육성, 경제다각화를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몽골 정부는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한 인프라 개발과 산업 발전을 중점 과제로 추진해왔으며, 2015년 중국, 러시아와 중·몽·러 경제회랑(CMREC: China-Mongolia-Russia Economic Corridor) 추진을 확정함.

- 2014년 차히야 엘벡도르지(Tsakhiagiin Elbegdorj) 몽골 대통령의 제안으로 제1차 3자 중·몽·러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2015년 제2차 정상회담에서 CMREC 추진을 확정했으며, 2016년에는 32개 세부 추진 프로젝트를 선정함.
- CMREC는 몽골의 '초원의 길',[4)]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동방정책' 등 유라시아 역내 경제협력을 위한 각국의 전략을 수렴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역 증대, 생산물의 경쟁력 확보, 초국경 운송 원활화, 인프라 발전 등을 목표로 함.

■ 우리 정부는 신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이 '동북아경제회랑' 구축 계획을 발표하는 등 유라시아 지역 내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역내 경제협력 동향 파악과 몽골과의 체계적인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우리 정부는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CMREC 연계사업 발굴, 몽골 TMGR 횡단철도 이용 활성화 등 일대일로 연계사업 및 동북 3성에 대한 다자간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몽골 등 중앙아시아 국가와 자원개발 및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임.
- 랴오닝성은 지난 2018년 9월 '랴오닝 일대일로 종합시험구 건설 총체방안'을 발표하고, 중점 시범사업으로

1) GDP와 인구(2017년 기준)는 World Bank Data, GDP 중 광업 비중(2018년)은 몽골 통계정보 서비스 참고(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3. 17).
2) 총산업생산 중 광업 비중은 2017년 기준, 수출 중 광물자원의 비중은 2018년 기준임. 몽골 통계정보 서비스(검색일: 2019. 3. 17).
3) World Bank, The Logistics Performance Index(LPI)(검색일: 2019. 3. 17).
4) 몽골 정부가 2013년 발표한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는 중국 및 러시아와 철도, 도로, 전력망, 석유 및 가스관 연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프라 개발계획임.

CMREC를 확대하여 러시아와 몽골뿐만이 아니라 한국, 북한, 일본까지 포함하는 '동북아경제회랑' 구축 계획을 밝힘.[5)]

○ 이는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권 구축으로 '중·몽·러 경제회랑'과 '한·중·일+α' 협력 모델을 융합, 발전시켜 더욱 자유롭고 편리한 경제협력과 문화교류를 추구하는 계획

■ 이에 본 자료에서는 CMREC 프로그램의 주요 추진 현황과 관련 몽골의 핵심과제를 살펴보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함.

2. 중·몽·러 경제회랑 개요와 추진 현황

가. 중·몽·러 경제회랑 개요

■ 중·몽·러 정상은 2016년 6월 24일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된 제3차 정상회담에서 CMREC 32개 사업을 확정했으며, 2017년 8월 실무회의를 통해 중앙철도회랑, 중앙도로회랑, 에너지 부문(송전선)을 우선 추진 프로젝트로 선정함.

- CMREC 협력 프로젝트는 △교통 인프라 △산업협력 △국경 통과지점 현대화 △에너지 협력 △무역·세관·검사·검역 협력 △환경·생태 보호 협력 △과학기술·교육 협력 △인도적 협력 △농업 △의료·보건 분야에 걸쳐있음.

○ 교통 인프라 부문 13개, 국경 통과지점 현대화 1개, 무역·세관·검사·검역 부문 4개 등 교통·물류 인프라 개선 및 협력 프로젝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또한 중·몽·러 3국은 국장급 실무회의(2017년 8월)에서 1번 중앙철도회랑, 9번 중앙도로회랑(아시아 자동차 도로망 AH-3 노선), 17번 몽골 및 러시아 전력망 현대화사업을 우선추진 사업으로 선정하면서 교통 인프라 및 에너지 협력 부문에 높은 관심을 나타냄.

표 1. CMREC 32개 프로젝트

교통 인프라	1. 중앙철도회랑	울란우데~나우쉬키~수흐바토르~울란바토르~자민우드~얼롄~장자커우~베이징~톈진	종합적 현대화 및 발전, 복선화 및 전철화의 경제적 타당성 조사
	2. 북부철도회랑	쿠라기노~키질~차간 톨고이~아르츠수르~오보트~에르데네트~살히트~자민우드~얼롄~울란차브~장자커우~베이징~톈진	프로젝트 수행 연구 및 경제적 타당성 확보 시 착수
	3. 서부철도회랑	쿠라기노~키질~차간 톨고이~아르츠수르~코브도~타케쉬켄~하미지구~창지후이족자치주~우루무치	프로젝트 수행 연구 및 경제적 타당성 확보 시 착수
	4. 동부철도회랑	보르쟈~솔로비옙스크~에렌차브~초이발산~후트~비치그트~쉴린-골(시린궈러맹)~츠펑~차오양~진저우/판진	프로젝트 수행 연구 및 경제적 타당성 확보 시 착수
	5. 두만강 교통회랑 ('프리모리예-2')	초이발산~숨베르~아르샨~울란-호토~장춘~옌지~훈춘~자루비노	확대 프로젝트 수행 연구 및 경제적 타당성 확보 시 착수

5) 이상훈 외(2018).

	6. '프리모리예-1' 철도 교통 회랑	초이발산~숨베르~아르샨~만저우리~치치하얼~하얼빈~무단장~수이펀허~블라디보스토크~나홋카	확대 프로젝트 수행 연구 및 경제적 타당성 확보 시 착수
	7. 몽골 영토를 지나는 모스크바~베이징 고속철도 간선 건설 가능성 연구		
	8. 3자 물류기업 설립 문제 협상 수행		
	9. 아시아 자동차 도로망 AH-3 노선	울란우데~캬흐타/알탄불락~다르한~울란바토르~사인샨드~자민우드/얼롄~베이징 외곽~톈진	통과운송 집중 이용, 해당 노선 고속 자동차도로 건설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10. 아시아 자동차 도로망 AH-4 노선	노보시비르스크~바르나울~고르노알타이스크~타샨타/울란바이쉰트~홉드~야란타이/타케쉬켄~우루무치~카쉬~혼키라프	건설 및 통과운송 집중 이용
	11. 동부 자동차도로 회랑	보르쟈~솔로비옙스크~에렌차브~초이발산~바룬우르트~비치그트~시린궈러맹~시-우드쥠치민-치~츠펑/실린-호토~차오양/청더~판진/진저우~톈진	프로젝트 수행 연구 및 경제적 타당성 확보 시 착수
	12. 중국, 몽골, 러시아 간 아시아자동차도로 국제자동차운송(UNESCAP) 협정 서명 및 실현 촉진		
	13. (울란우데~톈진) 통과 교통 회랑	울란우데~캬흐타/알탄불락~다르한~울란바토르~사인샨드~자민우드/얼롄~울란차브~베이징~톈진	통신 인프라의 적극적 조성, 안전보장 및 기술과정 관리의 장 마련
산업협력	14. 중·몽·러 경제회랑 선진 시범지대 조성 진전, 3국간 생산협력 클러스터 조성 가능성 연구		
	15. 헤이룽장과 러시아 지방들 간, 네이멍구와 몽골 간 경제협력 시범지대 조성 타당성 조사		
국경 통과 지점 현대화	16. 러시아-자바이칼스크 철도 통과지점, 포그라니츠니, 크라스키노, 몬디 자동차 통과지점 보수, 중국-만저우리, 수이펀허, 훈춘, 얼롄 통과지점 현대화, 몽골-철도, 자동차 통과지점 현대화 및 건설		
에너지 협력	17. 몽골 및 러시아 전력망 현대화에서 중국기업들의 참여 가능성 연구		
무역·세관 업무·검사·검역 부문	18. 2015년 7월 9일자 중·몽·러 국경을 지나는 통과지점 발전 부문 협력에 대한 기본 협정, 3국간 무역 발전 촉진을 위한 호의적 조건 조성 부문 협력에 대한 중·몽·러 세관간 양해각서 실행		
	19. 중·몽·러 세관간 일부 상품에 대한 세관 통제 결과 상호인정에 대한 협정 서명 및 실행 촉진		
	20. '일대일로' 차원의 식품 안전 분야 협력에 대한 2015년 11월 3일자 중·몽·러 공동성명 실행, 초국경 식품 무역 분야 감독 관련 협력 강화, 무역 조건 개선 촉진		
	21. 중·몽·러 조사·검역기관간 협력에 대한 기본 협정 서명 촉진		
환경·생태 보호 협력	22. 실질협력 진전, 자연보호특별구역에 대한 3자의 상호 이익적 협력을 촉진하는 접촉 강화 및 협의 수행, '다우리야' 중·몽·러 보호지역 활동 차원에서 상호 이익적 협력 활성화		
	23. 중·몽·러 초국경 생태회랑 건설, 야생 동식물 및 늪지대 학술탐사와 모니터링 수행, 야생 동식물, 철새 보호 부문 협력 강화		
	24. 생태·환경보호 부문 공동 통제 및 정보 교환 시스템 구축 가능성 연구		
과학기술·교육협력	25. 교통,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의 합리적 이용, 생명과학, 정보통신기술, 나노시스템 및 재료, 에너지, 에너지 절약 및 방출 감소, 농업과학, 신산업기술, 자연·유전적 재난과 같은 부문들에서 3국 테크노파크, 혁신 플랫폼, 학술·교육기관 간 협력 강화		
	26. 3자 과학기술 발전 정보 교환 진전, 연구원 교류 및 견습 촉진		
	27. 학생 상호 방문 및 대학생 해외 상호 파견 규모 확대, 교육기관의 청년 교육 교류 진전		
인도적 협력	28. 초국경적 지방간 관광노선 발전(예: 러시아의 바이칼 호, 몽골의 홉스굴 호, 중국의 후룬베이얼 호를 포함하는 대호수 트라이앵글), 중·몽·러 관광고리 조성		
	29. 중·몽·러 국제 관광 브랜드 'Great Tea Road' 개발		
	30. 3국 영화의 상업적 교환 진전, 공동 영화제작 발전		
농업	31. 2015년 9월 12일자 중·몽·러 검역기관간 협력 의향에 대한 협약 시행		
의료·보건	32. 의료 및 보건에 관한 국제세미나 공동 조직, 국민 보건 부문 협력 수행		

자료: 제성훈 외(2016), pp. 71~72.

나. 중·몽·러 경제회랑 주요 추진 현황

■ 3국은 몽골 외교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서부사),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참여하는 국장급 실무회의를 통해 CMREC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2018년 6월에는 제4차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CMREC 추진의지를 확인함.

- 국장급 회의에는 각국 대표로 몽골 외교부 무역 및 경제협력국 국장,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서부사 부사장, 러시아 경제개발부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국 부국장과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7년 3월과 8월, 2018년 12월 총 세 차례 개최됨.

표 2. CMREC 국장급 회의 주요 안건

1차 회의	2차 회의	3차 회의
2017년 3월 24일, 베이징	2017년 8월 29일, 모스크바	2018년 12월 11일, 울란바토르
- CMREC 추진을 위한 3자 협력 메커니즘 설립 합의 - 우선 시행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 교환	- 중앙철도회랑, 중앙도로회랑, 에너지부분을 우선 추진 프로젝트로 선정 - 3자 협력 메커니즘의 구체적인 내용 검토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공동 투자계획센터를 울란바토르에 설립하는 데 합의	-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추진사항 검토 - 다음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 △중앙철도회랑 개선 관련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워킹그룹 △중·몽·러 간 아시아자동차도로 국제자동차 운송 협정 실행 △공동 투자계획센터 설립 △에르데네트-오보트(Erdenet-Ovoot) 열차노선 건설 △아시아 자동차 도로망-3 용량 증대 △에너지 부분 공동 프로젝트

자료: 언론기사 참고하여 저자 정리.[6)]

- 몽골·중국·러시아 정상은 제3차 정상회담 이후 만 2년 만인 지난 2018년 6월, 제4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각 분야별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함.

○ 몽골은 3자 협력 메커니즘 구축과 투자계획센터 설립 등을 통한 CMREC의 조속한 실행을 강조, 러시아는 세관·통관 부문 협력 성과 공유 및 철도·에너지 분야 협력 제안, 중국은 CMREC 추진을 지지하는 한편 상하이협력기구(SCO)의 틀 안에서 3국 협력이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7)]

■ 우선추진 사업으로 선정된 교통·물류 인프라 및 에너지 부문, 그리고 몽골 내에서 정책적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본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음.

6) "First meeting of Mongolian, Russian and Chinese experts takes place"(2017. 3. 28); "Three countries hold meeting on economic corridor establishment"(2017. 9. 5); "Progress of Mongolia-Russia-China Economic Corridor Establishment Program discussed"(2018. 12. 12).

7) Permanent Mi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the UN(2018. 6. 9).

1) 교통·물류 인프라

- 교통 인프라 건설 및 개선 사업은 중·몽·러 3국을 연결하는 철도 4개 회랑, 도로 3개 회랑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림 1. CMREC 철도 회랑



그림 2. CMREC 도로 회랑



자료: Monistry of Foreign Affairs of Mongolia(2017).

○ 몽골은 러시아 정부와 중앙철도회랑 포함 몽골 내 철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울란바토르 철도사(Ulaanbaatar Railway JSC)' 현대화에 합의했으며,[8] 중국기업의 투자 및 시공을 통해 북부 및 동부 철도회랑의 일부 구간 건설을 추진

○ 또한 아시아개발은행의 차관으로 중앙도로회랑인 AH-3 노선 일부 구간에 대한 개량작업을 수행

표 3. CMREC 철도·도로 회랑 주요 추진 현황

구분	주요 추진 현황
1. 중앙철도회랑 (울란우데~나우쉬키~수흐바토르~울란바토르~자민우드~얼롄~장자커우~베이징~톈진)	- 몽·러 '울란바토르 철도' 현대화 합의(2018년 2월) · 몽골 정부의 철도 장기발전계획(2030)의 일환으로 철로 수선, 열차 및 기관차 개량 등을 내용으로 함. · 1단계(2018~20년) 계획에 러시아 정부 2억 6천만 달러 투자 예정[9]
2. 북부철도회랑 (쿠라기노~키질~차간 톨고이~아르츠수르~**오보트~에르데네트**~살히트~자민우드~얼롄~울란차브~장자커우~베이징~톈진)	- 오보트-에르데네트 구간 2019년 착공 예정[10] · 2015년 몽골 정부와 호주 '북부 철도사(Northern Railways)'가 선로 건설 및 운영에 대한 30년간의 양허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8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함. · 총 노선길이 549km, 12억 달러 규모의 공사로 중국 건설사인 CGGC(China Gezhouba Group Company)와 CR20G(China Railway 20th Bureau Group)가 시공사로 참여
3. 서부철도회랑 (쿠라기노~키질~차간 톨고이~아르츠수르~코브도~타케쉬켄~하미지구~창지후이족 자치주~우루무치)	- 몽골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계획 중

8) 울란바토르 철도사의 지분은 몽골 정부와 러시아 정부가 각각 50%씩 소유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러시아 측의 지분은 철도회사(OJSC Russian Railways)에서 신탁관리하고 있음. "Russia: Ulaanbaatar Railways to become part of the Russia-Mongolia-China economic corridor" (2018. 2. 20).

4. 동부철도회랑 (보르쟈~솔로비옙스크~에렌차브~**초이발산~후트~비치그트**~쉴린-골(시린궈러맹)~츠펑~차오양~진저우/판진)	- 몽골국영철도지주사(Mongolian Railway State Owned Share Holding Company)와 중국 바신철도(Baxin Railway Company) 간 후트-초이발산, 후트-비치그트 구간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2018년 4월)[11] · 후트-비치그트 구간 예비 타당성 조사 완료, 총 노선길이 239km, 초기 투자비용 10억 달러 예상[12]
9. 아시아 자동차 도로망 AH-3 노선 (울란우데~캬흐타/**알탄불락~다르한~울란바토르**~사인샨드~자민우드/얼롄~베이징외곽~톈진)	- 울란바토르-다르한-알탄불락 구간 개량 추진[13] · 2018년 7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6천만 달러 규모의 차관 제공 합의, 총 길이 311km로 2018년 하반기 공사 시작
10. 아시아 자동차 도로망 AH-4 노선 (노보시비르스크~바르나울~고르노알타이스크~타샨타/**울란바이쉰트~홉드~야란타이**/타케쉬켄~우루무치~카쉬~혼키라프)	- 울란바이쉰트-홉드-야란타이 구간 완공(1995~2018)[14] · 몽골 및 중국 정부, 아시아개발은행(ADB) 투자
11. 동부자동차도로회랑 (보르쟈~솔로비옙스크~에렌차브~초이발산~**바룬우르트~비치그트**~시린궈러맹~시-우드쥠치민-치~츠펑/실린-호토~차오양/청더~판진/진저우~톈진)	- 바룬우르트-비치그트 구간 건설 추진 · 272km 구간 건설에 대한 입찰 진행(2018년 4월)[15]

자료: 언론 자료를 종합하여 저자 정리. 세부 출처는 각주 참고.

- 3국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통관 운송을 위한 제도적 협력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는 정부간 합의 단계에 머물러 있음.

○ 중·몽·러 3국은 2016년 12월, 아시아 자동차 도로망 AH-3 및 AH-4 노선에 대한 통과권리를 공유하는 '아시아자동차도로 국제자동차운송 협정'에 서명했으며, 러시아 정부가 2017년에 승인을 완료하고, 몽골 및 중국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16]

○ 몽·러 양국은 2018년 2월, '철도화물운송조건에 대한 정부간 합의'를 마무리했으며, 본 합의는 △유연한 관세 제공을 통한 경쟁력 강화 △중계화물에 대한 국경 검문절차 완화 △화물 물동량 증가 추진 △몽골 수출업자들의 원활한 해양 운송 참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17]

2) 에너지 협력

- 러시아는 2018년 초, 몽골의 전력부족 문제 해소와 세렝가 강(Selenga River) 수력발전소 등 신규 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 및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베리아에서 생산된 전기를 몽골에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함.[18]

○ 9억 7천만 달러 규모의 500kV 국경 전력망 건설사업으로 중·몽·러 3국이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러시아 전력망 운영업체인 로세티(Rosseti)사가 2018년 초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

9) President of Russia(2018. 6. 9).
10) "Erdenet – Ovoot feasibility study completed"(2018. 4. 11); "Go-ahead for $US 1.2bn Mongolian Coal line"(2018. 8. 12).
11) "Xi, Putin and Battulga Meet in June, Qingdao"(2018. 4. 11).
12) "Chinese investors bid for Khuut-Bichigt project"(2018. 1. 25).
13) ADB(2018a).
14) "CAREC Corridor Implementation Progress, Planned Actions, and Support Needs: Mongolia"(2018).
15) 위의 자료.
16) 영문명은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International Road Transport along the Asian Highway Network'임. UN ESCAP(2016).
17) 영문명은 'Intergovernment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s of Mongolia and the Russian Federation on Terms for Rail Freight Transit Transportation'임. "Export Opportunity opens as Russia agrees to offer"(2018. 2. 28). 중국과는 2014년 '철도통과운송협력에 대한 협정서', '몽골의 중국 국토를 통한 해양 진출과 통과운송운행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본 협정서는 몽골 기업의 항만 이용, 세관검사 및 창고 이용, 통관 등에 대한 우대조건을 포함하고 있음. Lkhagvadorj Dolgormaa(2018).
18) "Mongolia Links Gas Transit Pipeline to Asian Super Grid Negotiations"(2018. 10. 15).

-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에 자국을 경유하는 석유 및 가스관 건설을 제안해왔으며, 2018년 6월 개최된 제4차 3자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최초로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논의에 진전이 있었음.[19]

○ 푸틴 대통령은 타당성 조사를 전제로 지지의사를 밝혔으며, 몽골 정부는 몽골을 경유하는 석유·가스관이 현재 진행 중인 서부 알타이 노선(Altai route)보다 짧은 경로이며, 알타이 산맥을 통과하는 것보다 건설이 용이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정부의 지지를 촉구

3) 산업 협력

- 몽골 정부는 무역, 특히 농업 및 식량 교역 확대를 목표로 국경 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고 검역·통관 시스템 및 시설 개선을 추진해옴.
- 몽골은 러시아와의 접경에 만저우리(Manzhouli), 알탄불락(Altanbulag) 자유무역지대 등을 운영함.

○ 만저우리는 2016년 6월 설립된 이후 2년 만에 총 거래액이 3억 6,000만 위안을 초월하는 등 주요 대외무역 합작창구로 역할[20]

○ 몽골 외무부는 2018년 4월, 러시아 무역대표부에 △알탄불락 내 새로운 몽·러 물류 및 무역 센터 건설 △알탄불락의 무역량 증대를 위한 러시아 캬흐타(Khyagta) 국경검문소 역량 향상 등을 제안하고 알탄불락 자유무역지대 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21]

- 몽·중 양국은 2015년부터 양국 접경지역인 자민우드(Zamyn-Uud, 몽골)와 에렌홋(Erenhot, 내몽골 자치구)에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진행해왔으며, 나아가 두 지역을 통합한 18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국경간 경제협력지대를 조성할 계획임.[22]

○ 양국은 5,880만 달러(중국 차관 5,000만 달러, 몽골 880만 달러)를 투입해 최근 자민우드 경제협력지대 내 상하수도, 발전소, 도로, 통신 등 기반시설 건설 완료[23]

3. 몽골의 중·몽·러 경제회랑 추진 배경과 핵심과제

가. 몽골의 중·몽·러 경제회랑 추진 배경

■ 몽골 정부는 유라시아 역내 통과운송 및 물류 허브(transit hub), 역내 주요 에너지 공급자(energy supplier), 역내 무역 촉진자(trade facilitator) 역할을 수행하고[24] 수출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추진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접경국이자 주요 경제파트너인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추구해옴.

19) 위의 자료.
20) 「미-중 무역갈등 속 중-러 무역구 '만저우리' 급성장」(2018. 7. 31).
21) "Russian and Mongolian Officials discuss development of Altangulag free trade zone"(2018. 4. 18).
22) "Belt and Road Inner Mongolia: The Erenhot China-Mongolia Trade Hub"(2019. 1. 16).
23) "Launch of Zamyn-Und free zone in temporary mode requested"(2018. 6. 22).
24) 제성훈 외(2016), p. 66.

- 내륙국이라는 몽골의 지리적 위치, 대외무역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으로 인해 양국과의 협력이 몽골의 경제개발에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어왔으며, 2000년대부터 경제성장 가속화로 해외시장 진출, 수출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몽골은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를 발표함.
  - ○ 2013년 발표된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는 러시아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에 이르는 인프라 개발 제안으로 철도, 도로, 가스관, 송유관, 송전망 등을 포함

■ 2013년 몽골의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 발표와 더불어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발표하고, 러시아가 '동방정책'을 가속화하는 등 유라시아 역내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각국의 수요가 일치하면서 3자 협력 체계인 '중·몽·러 경제회랑 프로그램'으로 발전함.

- 몽골은 3자 경제협력을 통해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 개발을 통한 통과운송 활성화와 수출시장 확대 △세관·검역 통제 협력과 접경지역 협력을 통한 농축산물 수출 활성화 △ 에너지 인프라 개발을 통한 발전소 건설과 전력 수출 △금융협력을 통한 금융안정화 대책 마련 △투자계획센터 설립을 통한 3국 경제협력의 장기적 발전과 몽골의 입지강화를 기대함.[25]

나. 몽골의 중·몽·러 경제회랑 핵심과제

1) 지속가능한 CMREC 추진 기반 마련

■ CMREC는 정상간 합의된 최초의 일대일로 다자간 협력 프로그램으로, 32개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등 참여국이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임에 따라 성과가 기대되었으나, 2016년 프로젝트 합의 후 만 3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추진 실적이나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중앙 및 동부 철도회랑, 아시아 자동차 도로망 AH-3 노선의 일부 구간 건설이 추진되는 등 교통 인프라와 에너지 협력 부문에서 몇몇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
  - ○ 교통·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한 몽골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류성과지수'가 크게 개선되지 않음.
  - ○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 건설과 더불어 원활한 통관 운송을 위해 자동차, 철도 화물 운송에 대한 3자간 협정 등을 조속히 승인하고 시행해야 하며, 운송사업자·세관중개인 등 물류서비스 개선이 필요

25) 위의 자료, p. 69.

표 4. 몽골의 물류성과평가

연도	종합순위	종합점수	부문별 점수(순위)					
			통관	인프라	국제운송	물류역량	화물추적	적시성
2010	141	2.25	1.81(149)	1.94(133)	2.46(119)	2.24(128)	2.42(122)	2.55(147)
2012	140	2.25	1.98(144)	2.22(125)	2.13(142)	1.88(152)	2.29(134)	2.99(97)
2014	135	2.36	2.20(132)	2.29(120)	2.62(110)	2.33(126)	2.13(149)	2.51(147)
2016	108	2.51	2.39(100)	2.05(140)	2.37(129)	2.31(129)	2.47(108)	3.40(65)
2018	130	2.37	2.22(127)	2.10(135)	2.49(117)	2.21(140)	2.10(152)	3.06(93)

주: 2010년, 2012년 155개국, 2014년, 2016년, 2018년은 160개국 중 순위이며, 모든 점수는 5점 만점 기준임.
자료: Wrold Bank, The Logistics Performance Index DB(검색일: 2019. 4. 7).

- 환경·생태·과학기술·인도적 협력 등 교통·에너지 부분 외 CMREC 협력사업은 거의 추진되지 않았음.
- CMREC 프로젝트는 중앙아시아경제협력체(CAREC)[26] 추진 사업 등 이미 존재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어 자체적인 추진실적 파악이 어렵고, 보다 추진이 용이한 몽·중, 몽·러, 중·러 등 양자협력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이 추진되는 양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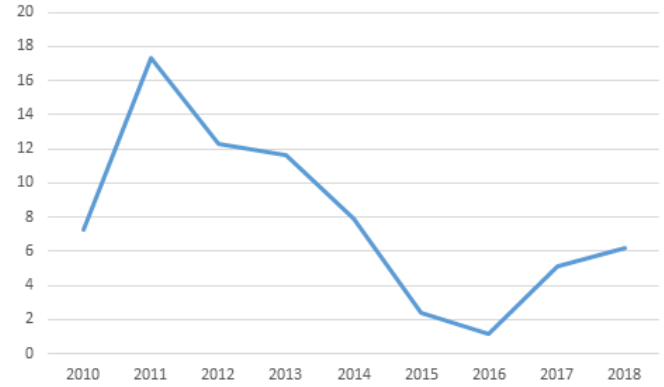
■ **그 배경으로는 투자유치 문제와 참여국의 이해관계 차이, 그리고 최근 몽골의 경제위기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몽골의 자본시장 미발달과 최근의 경제위기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자체적인 자금 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이에 투자유치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음.
  - ○ 타반톨고이(Tavan Tolgoi) 석탄 광산과 중국 국경을 연결하는 타반톨고이-사인샨드(Sainshand) 구간 철로 건설을 위한 총 비용 10억 달러 중 2억 달러만 확보되면서 완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27]
  - ○ 몽골은 중국수출입은행의 10억 달러 차관을 통해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Egiin Gol hydro power project)를 추진했으나, 바이칼 호수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는 러시아의 반대로 중국이 프로젝트를 중단하면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 했던 경험이 있음.[28]
- 몽골과 러시아는 알타이 산맥을 경유하는 서부 석유·가스관보다 거리가 짧고 건설이 용이한 몽골 경유 노선에 긍정적이나, 중국은 다른 국가를 경유하지 않고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직접 연결되는 서부 알타이 노선을 선호하는 등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프로젝트 추진이 영향을 받음.
- 몽골은 산업생산, 수출 등 경제 전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광물가격의 하락,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 광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감소의 영향으로 외환위기를 겪음.
  - ○ 2013년 11.6%에 달했던 경제성장률이 2016년 1.2%로 크게 둔화되었으며, 이에 몽골은 2017년부터 상환기간 10년을 조건으로 3년간 IMF로부터 확대신용공여(Extended Fund Facility) 4억 3,430만 달러를 지원받고 있음.

26) CAREC(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은 중앙아시아 11개 국가의 경제개발협력프로그램으로 경제 및 금융 안정, 무역, 관광,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교육 등 분야에서 협력 추진. CAREC, CAREC 2030 Strategic Framework.
27) "What does the China-Mongolia-Russia Economic Corridor mean for Mongolia?"(2018. 9. 30).
28) Gregor Grossman(2017), p. 3.

그림 3. 몽골 경제성장률 추이(2010~18)

(단위: %)



자료: IMF WEO Database, October 2018(검색일: 2019. 4. 2).

그림 4. 몽골 외환보유고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몽골중앙은행(검색일: 2019. 4. 2).

■ 몽골 정부는 CMREC 추진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 정부에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안정적인 추진체계 구축을 제안하는 등 지속가능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몽골은 국제회의, 다자 및 양자 회담 등을 통해 CMREC에 대한 중국 및 러시아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있으며, 공동 메커니즘·투자계획센터 설립 등을 통해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몽골 정부의 지속적인 요청을 통해 2018년 9월, '경제회랑 발전을 진전시키기 위한 공동 메커니즘 수립(Establishment of a Joint Mechanism to Advance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ic Corridor)'에 관한 합의 달성[29]

- 2017년 9월에는 중국의 바오샹(包商)은행과 몽골의 무역개발은행(Trade and Development Bank)을 중심으로 총 33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몽·중 금융협력협회가 설립되어 CMREC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위험 관리, 자문, 투자 프로젝트 협력, 국경을 초월한 자본 운영 촉진 등의 역할을 수행함.[30]
- 몽골은 정부 내 CMREC 실현을 위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사업 관련 비자 및 입국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함.

○ 본 워킹그룹은 2017년 5월 총리령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외교부 차관을 의장으로 도로 및 교통개발부, 에너지부, 국가개발청, 통신 및 정보기술국, 세관 당국, 검역청, 표준화기구, 개발은행, 몽골 광물 공기업 에르데네스 몽골이 참여[31]

○ 몽골 정부는 일대일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11월부터 일대일로 사업관련 입국 시 복수비자 발급, 공항 및 국경에서의 비자 신청 허용, 빠른 입출국 서비스를 제공[32]

2) 대중·대러 협력을 통한 경제발전 및 산업다각화 달성

■ 몽골은 광업을 중심으로 2000년대부터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나, 자원의존적 경제구조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몽골 정부는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장기발전 과제로 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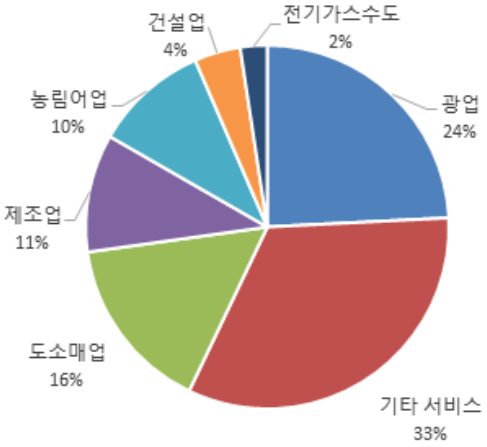
29) President of Mongolia Khaltmaagiin Battulga(2018).
30) "Financial cooperation association of China and Mongolia set up in Hohhot"(2017. 9. 28).
31) "National Working Group on trilateral economic corridor meets"(2018. 1. 30).
32) "Mongolia Provides quick entry services to facilitate Belt and Road Initiative"(2018. 8. 28).

- 몽골의 최대 산업은 광업으로 몽골 GDP의 24%,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의 66%가 광업 부문이며, 금속 및 비(卑)금속 광물이 전체 수출의 90% 내외로 대부분을 차지함.

○ 몽골은 석탄 등 광물자원을 수출하고 석유, 차량, 기계류 등을 수입하는 교역구조를 보임.[33]

그림 5. 몽골의 GDP 구성(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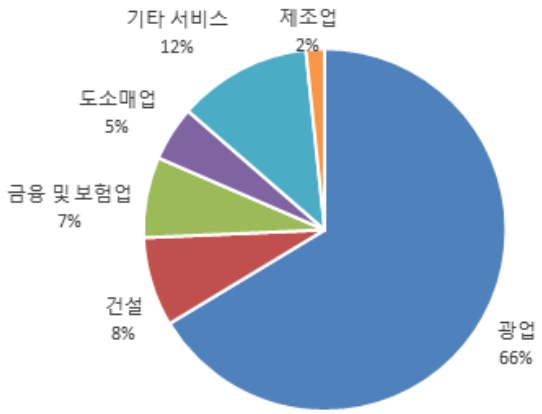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몽골 통계정보 서비스(검색일: 2019. 4. 3).

그림 6. 몽골의 FDI 유입 구조(2017년)

(단위: %)



자료: 몽골 통계정보 서비스(검색일: 2019. 4. 3).

표 5. 몽골의 주요 수출입 품목(2017년)

(단위: %)

	수출			수입		
	HS코드[34]	품목	비중	HS코드	품목	비중
1	27	광물성 연료에너지	42.7	27	광물성 연료에너지	22.4
2	26	광(鑛)·슬래그(slag)·회(灰)	35.5	87	일반차량	12.8
3	71	귀석, 반귀석, 귀금속	9.6	84	보일러 기계류	12.8
4	51	양모·수모	4.7	85	전기기기·TV·VTR	8.4
5	74	동과 그 제품	1.5	73	철강제품	4.8
6	25	토석류·소금	1.4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2.2
7	8	과실·견과류	0.9	30	의료용품	2.2
8	2	육과 식용 설육	0.9	40	고무와 그 제품	2.0
9	61	의류(편물제)	0.6	72	철강	1.9
10	41	원피가죽	0.4	21	기타의 조제식료품	1.8
기타			1.8	기타		28.7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9. 4. 3).

- 이러한 자원의존적 경제는 원자재 가격, 수출대상국의 경기둔화 등 외부충격에 민감하여 거시경제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몽골 정부는 2009년과 2014년에 발생한 외환위기의 원인을 광업 부문에 집중된 산업구조와 제조업 부문의 미발달에서 찾고 있음.[35]

33) 몽골의 최대 수출품은 HS 2701 석탄과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 조개탄과 이와 유사한 고체연료이며, 최대 수입품은 HS 2710 석유와 역청유임.
34) 본 자료의 HS코드 품목은 관세법령정보포털, 세계HS 정보 속견표를 참고함.
35) 김보라(2016), p. 2.

■ 몽골 정부는 2010년대 중반 이래 '국가산업정책', '국가지속가능개발개념 2030' 등을 발표하고 비광물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발전전략과 지원정책을 제시함.

- '국가산업정책(2015년 발표)'은 △1단계 건축자재 제조업과 석탄 등 원자재 가공산업 중점 육성, 수출지향적 수입대체 산업정책 시행 △2단계 철강제조 및 구리제련, 화학공업 등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 △3단계 지식기반산업 개발 및 서비스업 육성이라는 단계별 산업육성 정책과 산업클러스터, 자유경제지대, 산업기술단지 등에 대한 종합 조성 계획임.[36]
- '국가지속가능개발개념 2030(2016년 발표)'은 국가개발 목표 중 하나로 지속가능 경제개발을 제시하고 목축업, 식료품업, 경공업, 건축자재 제조업, 구리가공업, 석탄·석탄화학업, 철강업, 관광업, 광산업 등을 중점 개발 산업으로 지정했으며, 이들 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계획을 담고 있음.[37]
- 2018년에는 '세 기둥 개발정책', '산업화 21:100 국가 프로그램', '몽골 수출 프로그램' 등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산업다각화 및 수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함.
  - ○ '세 기둥 개발정책'은 다변화된 경제 발전을 목표로 △식품, 농축산업, 경공업 분야 △광업, 중공업 분야 △무역, 관광, 인프라 분야 개발조치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관개시설·저장고·온실 등 농업 기반시설 강화, 농축산품 가공산업 발전, 관광 루트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제안[38]
  - ○ '산업화 21:100' 프로그램은 비광물 제조업 개발을 위해 몽골 내 21개 도에 100개의 공장을 건설하는 구상으로, 민간기업 투자, 정부 예산, 대외원조와 차관 등을 통해 추진 예정[39]
  - ○ '몽골 수출 프로그램'은 수출관련 법률 개선, 조세환경 안정, 수출 지원을 통해 수출제품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수출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정책[40]

■ 자체적인 산업기반이 부족한 몽골은 CMREC를 통한 대중·대러 협력 기회를 제조기반 육성, 비광물산업 발전 등 경제다각화 추진에 활용하고자 함.[41]

- 몽골의 부족한 인적 자원 및 기술력, 산업 인프라 등은 산업발전에 제약요인이 되어왔으며, 이에 몽골은 주요 경제협력국인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개발을 추진해옴.[42]
  - ○ 몽골 정부는 2003년부터 중·러 접경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고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와 제도적 혜택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면서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했으나, 지금까지 조성된 알탄불락(Altanbulag), 자민우드(Zamyn-Uud), 차강노르(Tsagaannuur) 자유무역지대는 인프라 미개발, 취약한 수용력, 운영능력 부족 등으로 제한적인 역할에 그침.[43]
  - ○ 몽골은 2015년 채택한 '국가산업정책'에서 산업클러스터, 자유경제지대, 산업기술단지 조성 등을 통해 산업발전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으며, CMREC에도 '선진 시범지대 조성 진전, 3국간 생산협력 클러스터 조성 가능성 연구, 경제협력 시범지대 조성 타당성 조사'의 형태로 반영
- CMREC를 통한 경제협력지대·산업단지 조성, 무역·세관·검역 부문 협력 강화는 몽골의 산업발전과 수출 증대, 경

36) 김보라(2016), p. 3, p. 23.
37) 제성훈 외(2016), p. 61, pp. 64~65.
38) 김보라(2018).
39) 위의 자료.
40) Gantumur Munkhnasan(2018).
41) "Mongolia, a new link i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2017. 4. 10).
42) 최필수(2016).
43) ADB(2018b), p. 2.

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광 부문도 몽골의 유망 산업으로 중·러와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몽·중 정부는 2018년 4월, 중국의 차관 7,800억 위안으로 몽골 내 4개의 육류 공장 및 검역 복합시설을 건설하기로 합의하는 등 육류 가공 및 검역 협력을 강화

○ 칼트마 바툴가(Khaltmaagiin Battulga) 몽골 대통령은 2018년 6월, 알탄불락 내 육류 및 가죽생산 공장 설립을 위해 러시아 정부의 투자와 기술지원을 요청했으며, 농기계 및 가축질병 백신 부문에서도 러시아와 협력을 지속

○ 또한 바툴가 대통령의 요청으로 유라시아 대륙 자동차 경주인 '실크웨이랠리'가 2019년에는 이르쿠츠크(러시아)-울란바토르(몽골)-둔황(중국) 경로로 진행 예정[44]

3)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 완화

■ **중국은 몽골의 최대 교역국이자 주요 투자국으로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으나, CMREC 등을 통해 중국과의 협력 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 심화 및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중국은 몽골의 1위 무역파트너로서 2018년 기준 총 교역의 65.8%를 차지했으며, 특히 2010~18년 대중국 수출 비중은 평균 87%로 매우 높은 수준임.

○ 몽골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대중국 교역액은 85억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26% 증가했고, 대중국 수출·수입 비중도 각각 2017년 85.6%, 32.6%에서 2018년 92.8%, 33.5%로 상승해 중국과의 교역량 및 교역 비중이 높아짐.

○ 몽골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은 석탄, 구리, 형석 등 광물이며, 주요 수입품은 건축자재, 생활용품, 기계설비, 식품 등임.

표 6. 몽골의 주요 수출입국(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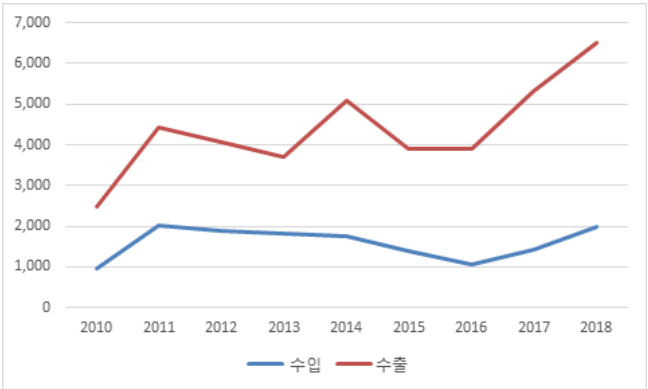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수출				수입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1	**중국**	**6,506**	**92.8**	1	**중국**	**1,969**	**33.5**
2	영국	173	2.5	2	러시아	1,710	29.1
3	러시아	86	1.2	3	일본	561	9.5
4	이탈리아	54	0.8	4	대한민국	262	4.5
5	싱가포르	30	0.4	5	미국	211	3.6
6	일본	26	0.4	6	독일	169	2.9
7	대만	25	0.4	7	폴란드	58	1.0
8	대한민국	21	0.3	8	이탈리아	55	0.9
9	독일	12	0.2	9	인도	52	0.9
10	베트남	10	0.1	10	말레이시아	50	0.9
총 수출액		7,012		총 수입액		5,875	

자료: 몽골 통계정보 서비스(검색일: 2019. 3. 17).

그림 7. 몽골의 대중국 수출입 추이(2010~18)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몽골 통계정보 서비스(검색일: 2019. 3. 17).

- 중국은 또한 2018년 3/4분기 기준 몽골 외국인직접투자(FDI)의 24%를 차지하는 등 캐나다와 함께 몽골의 주요 외국인 투자국이며, 투자액의 대부분이 광산업으로 유입되었음.

44) "2019 Silk Way Rally to take Russia-Mongolia-China Route"(2018. 9. 25).

표 7. 대몽골 주요 외국인직접투자 국가(~2018년 9월, 누적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금액	비중
1	캐나다	5,697	29.4
2	**중국**	**4,653**	**24.0**
3	싱가포르	1,605	8.3
4	룩셈부르크	1,480	7.6
5	홍콩	1,044	5.4
6	일본	687	3.5
7	네덜란드	678	3.5
8	미국	669	3.5
9	대한민국	453	2.3
10	영국	427	2.2
총 유입액		19,379	

자료: 몽골중앙은행, CDIS(2010-2018Q3), 검색일: 2019. 3. 15).

■ 몽골의 대외채무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8년 3월 글로벌개발센터(CGD: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몽골을 일대일로 추진으로 인해 재정상황 악화가 우려되는 8개 국가 중 하나로 언급하였음.[45]

- CGD 보고서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국 68개를 분석한 결과 몽골을 포함한 8개 국가의 경우 과도한 부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 특히 2017년 중국수출입은행이 몽골에 1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한 바 있고, 향후 CMREC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자금이 유입된다면 몽골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함.

표 8. 몽골의 대외채무(GDP 대비 비중)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외채	105	140	158	179	193	221	247
일반정부	20	29	28	29	32	44	66
중앙은행	3	5	9	13	17	16	18
예금취급기관	7	10	11	14	18	22	20
기타부문	75	97	109	123	127	140	143

주: 기타부문은 기업 간 거래를 의미하며, 주로 광업 부문 관련임.
자료: IMF(2018), pp. 45-46.

■ 중국에 집중된 교역구조는 몽골 경제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몽골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침.

- 최근 발생한 몽골 외환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중국의 경기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가 지적됨(그림 7 참고).
- 중국정부는 2016년 달라이 라마의 몽골 방문 이후 금융 지원을 위한 정부간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고, 몽골 남부와 접한 중국 네이멍구(內蒙古) 통관 차량에 통관비를 징수하는 등 보복조치를 취한 바 있음.[46]

45) 언급된 8개 국가는 몽골 외 지부티, 몰디브, 라오스, 몬테네그로,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파키스탄임. John Hurley, Scott Morris, and Gailyn Portelance(2018), pp. 16-18.

○ 이 사건은 몽골 정부가 티베트는 분리될 수 없는 중국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정하고 달라이 라마의 몽골 방문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락됨.

■ 몽골은 중국 및 러시아 외 다른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제3의 이웃(Third Neighbor)'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균형적인 대외정책을 펼치고자 함.

- '제3의 이웃' 정책은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에서 보다 균형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일본, 미국, 유럽, 한국 등 '제3의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를 적극 발전시킨다는 몽골의 대외경제정책 개념으로, 바툴가 대통령은 2017년 7월 취임식에서 이 정책의 추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바 있음.[47]
- 몽골은 일본, 미국, 한국, 인도, 국제기구 등 중국 외 국가 및 기구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의 투자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대외관계를 다변화하고자 함.

○ 몽골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추진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지역경제협력체(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를 통해 다양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해왔으며, 지금까지 약 300개의 프로젝트가 ADB의 투자로 실행

○ 일본은 몽골의 3대 수입국이자 지속적으로 원조와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주요 협력국으로, 2015년 울란바토르 신공항 건설을 위해 3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기도 했으며,[48] 미국의 대외원조기관인 새천년도전공사(MCC: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는 2018년 6월 울란바토르시 내 수자원 공급 증대를 위한 인프라 건설, 제도 개선 프로젝트에 3억 5천만 달러의 무상원조를 제공[49]

○ 한국은 7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조성하고, 이 중 5억 달러를 대기오염 저감 및 주택보급 개선사업에 우선 사용하기로 몽골 정부와 합의했으며(2018년), 인도수출입은행이 제공한 10억 달러의 양허성 차관은 정유 공장 건설사업에 활용[50]

4. 시사점

■ CMREC는 몽골 경제발전의 최대 과제가 되어온 교통·물류 인프라 개선 및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다수의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며, 특히 경제위기 이후 몽골의 경제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핵심 사업이 되고 있음.

- 몽골은 CMREC를 통한 교통 인프라 구축, 에너지 및 산업 협력을 통해 수출 시장 다변화, 수출 확대, 발전소 및 전력 인프라 등을 확충하고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을 이루고자 함.
- 몽골 정부는 투자계획센터 등 CMREC 추진 기반 마련을 통해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CMREC를 통한 중국 및 러시아와의 산업 협력 심화는 몽골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광물산업 및 제조업 육성과 경제의 자원의존도를 낮추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46) 「중국에 백기 든 몽골 "달라이 라마 다시 못오게 할 것"」(2016. 12. 21).
47) President of Mongolia Khaltmaagiin Battulga(2017).
48) Yiyi Chen(2018).
49)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Mongolia Water Compact.
50) 김보라(2019).

■ 한편 중국에 대한 몽골의 높은 경제적 의존도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자체적인 자금조달역량이 부족한 몽골의 입장에서 중국의 투자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단기적으로 외국인투자 및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을 줄여나가기는 어려우나, 몽골 정부는 CMREC를 통한 수출시장 확대, 경제성장 등이 장기적으로 경제파트너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 및 몽골과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몽골 정부의 협력 수요를 고려한 협력방안 모색이 요구됨.

- 우리 정부는 중부권역(중앙아시아, 몽골)과 성장잠재력이 큰 자원개발 및 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경제 현대화 및 산업 다각화 정책을 고려하여 제조업, 농업 및 정보통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자 함.[51]
  - ○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중·몽·러 경제회랑 인프라 구축사업,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상호협력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발전과 한반도의 경제통합으로 이어지는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52]
  - ○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9년 3월 몽골 순방에서 2020년 한·몽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는 등 양국 협력관계 강화를 제안
- 몽골 정부는 교통물류 인프라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비광업부문 육성을 통한 자원의존경제 탈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수출산업 육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 특히 몽골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산업분야는 농·목축업과 식품·경공업 부문으로, 이는 '국가지속가능개발개념 2030', '세기둥 개발정책' 등 기존의 산업발전 전략과 2019년 경제발전 정책을 담은 '2019년 몽골 경제·사회 발전 기본 방향'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53]
- 중장기적으로 몽골 정부의 협력 수요를 고려한 경제협력 방안 마련이 요구됨.
  - ○ 몽골 정부의 산업 협력 수요에 부응하여 농·목축업, 식품·경공업 부문에서 육류가공, 가축 전염병 대응, 온실 및 저장고와 같은 설비, 농기계, 비료 등과 관련한 인적·물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도 일치
  - ○ 몽골이 제3의 이웃 정책 등을 통해 경제협력 파트너를 다변화하고자 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동북아수퍼그리드 및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등 인프라 및 산업협력 부분에서 몽골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경제동반자협력(EPA)을 조속히 체결하는 등 중장기적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필요 KIEP

51)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홈페이지, 지역별전략(검색일: 2019. 4. 30).
52)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보도자료(2018).
53) '2019년 몽골 경제·사회 발전 기본 방향'은 경제성장을 위한 분야별 정책으로 △농·목축업 분야 발전 △식품·경공업 생산 지원 △광업 및 중공업 발전 △국내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한 에너지 설비 용량 증가 △운송 분야 발전을 제시하고 있음. '농·목축업 분야'에서는 관련 법적 환경 개선, 가축 전염병 예방, 농장형 축산업 육성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식품·경공업 분야'에서는 육류 및 우유 가공 증대, 온실·저장고를 통한 채소와 과일 보급 증대, 채소·과일 저장 유통단지 건설, 토양 비옥도 증진 등의 정책을 실시할 계획임. 김보라(2019), p. 17.

참고문헌

[국문자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019.「몽골 순방(보아오 순방 2일차)」. 보도자료. (3월 26일). http://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20991&article.offset=20&articleLimit=10(검색일: 2019. 4. 7).

김보라. 2016.「몽골 정부의 국가발전전략: 산업발전 정책을 중심으로」. 전문가풀 발표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월 3일).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expertMeeRslt&searchCate1=ORGNZT_0010040140000&nttId=190026.

_____. 2018.「몽골 후렐수흐 총리의 신경제정책 방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전문가풀 발표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월 26일).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expertMeeRslt&searchCate1=ORGNZT_0010040140000&nttId=201830.

_____. 2019.「2018년 몽골의 주요 사건과 2019년 전망」. 전문가 간담회 발표자료. (2월 7일)

「미-중 무역갈등 속 중-러 무역구 '만저우리' 급성장」. 2018.『초이스경제』. (7월 31일). http://www.choi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95(검색일: 2019. 3. 20).

북방경제협력위원회. 2018.「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몽골과 새로운 경제협력채널 구축」. 보도자료. (3월 10일)

외교부. 2019.「몽골언론 주요기사: 몽골의 중립정책과 상해협력기구 가입이 대립되고 있다」. 언론보도. (2월 26일). http://overseas.mofa.go.kr/mn-ko/brd/m_374/view.do?seq=1346523(검색일: 2019. 2. 28).

이상훈, 전수경, 최재희. 2018.「'랴오닝성 일대일로 종합시험구' 조성 계획의 주요 내용 및 평가」.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1. No.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성훈, 나희승, 최필수, Lkhagvadorj DOLGORMAA. 2016.『중·몽·러 경제회랑의 발전 잠재력과 한국의 연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에 백기 든 몽골 "달라이 라마 다시 못오게 할 것"」. 2016.『연합뉴스』. (12월 21일). https://www.yna.co.kr/view/AKR20161221067600083(검색일: 2019. 2. 28).

최필수. 2016.「중국의 유라시아 전략과 몽골」. 전문가풀 발표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월 9일).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expertMeeRslt&searchCate1=ORGNZT_0010040140000&nttId=192437.

Gantumur Munkhnasan. 2018.「신북방정책 실현을 위한 한·몽 경제협력 방안」. 전문가풀 발표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월 20일).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expertMeeRslt&searchCate1=ORGNZT_0010040140000&nttId=202257.

Lkhagvadorj Dolgormaa. 2018.「몽·중, 몽·러 경제교류 현황」. 전문가풀 발표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월 20일).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expertMeeRslt&searchCate1=ORGNZT_0010040140000&nttId=202547.

[영문자료]

ADB. 2018. "ADB-Supported Road Development to Help Spur Growth in Mongolia." (July 2). https://www.adb.org/news/adb-supported-road-development-help-spur-growth-mongolia(검색일: 2019. 3. 16).

_____. 2018. "Mongolia: Preparing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Projects." *Technical Assistance Report*. https://www.adb.org/sites/default/files/project-documents/51412/51412-001-tar-en.pdf.

Gregor Grossman. 2017. "One Belt, One Road and the Sino-Mongolian Relationship." Blickweshsel. (April). https://www.eu-china.net/uploads/tx_news/2017_April-9__Mongolei___UA__sec_01.pdf(검색일: 2019. 4. 1).

IMF. 2018. "Country Report No. 18/303: Mongolia." https://www.imf.org/en/Publications/CR/Issues/2018/11/02/Mongolia-Fifth-Review-Under-the-Extended-Fund-Facility-Arrangement-and-Request-for-46323(검색일: 2019. 3. 15).

John Hurley, Scott Morris, and Gailyn Portelance. 2018. "Examining the Debt Implications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from a policy perspective." *CGD Policy Paper*, 121. (March).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https://www.cgdev.org/sites/default/files/examining-debt-implications-belt-and-road-initiative-policy-perspective.pdf(검색일: 2019. 3. 16).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Mongolia. 2017. "Mongolia-Russia-China Economic Corridor: Building a Network of Science and Technology Parks.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4.3%20Mongolia.pdf(검색일: 2019. 3. 12).

Permanent Mi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the UN. 2018. "Xi Jinping Chairs the Fourth Meeting of Heads of State of China, Russia and Mongolia." (June 9). http://www.china-un.org/eng/zgyw/t1568039.htm(검색일: 2019. 3. 10).

President of Mongolia Khaltmaagiin Battulga. 2018. "PRESIDENT: THE SIDES HAVE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ESTABLISHING A JOINT MECHANISM TO ADVANCE THE TRILATERAL ECONOMIC CORRIDOR." (September 14). https://president.mn/en/2018/09/14/president-the-sides-have-signed-a-memorandum-of-understanding-on-establishing-a-joint-mechanism-to-advance-the-trilateral-economic-corridor/(검색일: 2019. 3. 26).

_____. 2017. "INAUGURATION ADDRESS BY KHALTMAAGIIN BATTULGA, THE PRESIDENT OF MONGOLIA, AT THE CEREMONY OF PRESIDENTIAL SWEARING INTO OFFICE." (July 10). https://president.mn/en/2017/07/10/inauguration-address-by-khaltmaagiin-battulga-the-president-of-mongolia-at-the-ceremony-of-presidential-swearing-into-office/(검색일: 2019. 3. 26).

President of Russia. 2018. "Meeting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nd Mongolian President Khaltmaagiin Battulga." (June 9).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57713(검색일: 2019. 3.15).

UN ESCAP. 2016. "China, Mongolia and Russian Federation to open up new era of trade cooperation." (December 9). https://www.unescap.org/news/china-mongolia-and-russian-federation-open-new-era-trade-cooperation(검색일: 2019. 3. 16).

Yiyi Chen. 2018. "China and Japan's Investment Competition in Mongolia." The Diplomat. (August 1). https://thediplomat.com/2018/08/china-and-japans-investment-competition-in-mongolia/(검색일: 2019. 3. 31).

"Belt and Road Inner Mongolia: The Erenhot China-Mongolia Trade Hub." 2019. HKTDC RESEARCH. (January 16). http://economists-pick-research.hktdc.com/business-news/article/Research-Articles/Belt-and-Road-Inner-Mongolia-The-Erenhot-China-Mongolia-Trade-Hub/rp/en/1/1X000000/1X0AG8B1.htm(검색일: 2019. 3. 20).

"CAREC Corridor Implementation Progress, Planned Actions, and Support Needs: Mongolia." 2018. Paper presented at the 17th Transport Sector Coordinating Committee Meeting. https://www.carecprogram.org/uploads/MON_EN.pdf(검색일: 2019. 3. 16).

"China says its Belt and Road loans are not debt traps." 2018. bgtimes. (August 28). https://gbtimes.com/china-says-its-belt-and-road-loans-are-not-debt-traps(검색일: 2019. 3. 15).

"Chinese investors bid for Khuut-Bichigt project." 2018. gogoMONGOLIA. (January 25). http://mongolia.gogo.mn/r/161037(검색일: 2019. 3. 16).

"Erdenet – Ovoot feasibility study completed." 2018. Railwaypro. (April 11). https://www.railwaypro.com/wp/erdenet-ovoot-feasibility-study-completed/(검색일: 2019. 3.15).

"Export Opportunity opens as Russia agrees to offer." 2018. ubinfo.mn. (February 28). https://ubinfo.mn/read/8543(검색일: 2019. 3. 16).

"Financial cooperation association of China and Mongolia set up in Hohhot." 2017. Belt and Road Portal. (September 28). https://eng.yidaiyilu.gov.cn/qwyw/rdxw/29359.htm.

"First meeting of Mongolian, Russian and Chinese experts takes place." 2017. Montsame. (March 28). https://montsame.mn/en/read/129361(검색일: 2019. 3. 10).

"Go-ahead for $US 1.2bn Mongolian Coal line." 2018. IRJ. (August 12). https://www.railjournal.com/regions/asia/go-ahead-for-mongolian-coal-line/(검색일: 2019. 3. 15).

"Launch of Zamyn-Und free zone in temporary mode requested." 2018. montsame. (June 22). https://montsame.mn/en/read/135705(검색일: 2019. 3. 20).

"Mongolia, a new link i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2017. OBOReurope. (April 10). https://www.oboreurope.com/en/mongolia-belt-road/(검색일: 2019. 3. 26).

"Mongolia Links Gas Transit Pipeline to Asian Super Grid Negotiations." 2018. Eurasia Daily Monitor. (October 15). https://jamestown.org/program/mongolia-links-gas-transit-pipeline-to-asian-super-grid-negotiations/(검색일: 2019. 3. 16).

"Mongolia Provides quick entry services to facilitate Belt and Road Initiative." 2018. Xinhuanet. (August 28). http://www.xinhuanet.com/english/2018-08/28/c_137425768.htm(검색일: 2018. 3. 29).

"National Working Group on trilateral economic corridor meets." 2018. montsame. (January 30) https://montsame.mn/en/read/133321(검색일: 2018. 3. 29).

"Progress of Mongolia-Russia-China Economic Corridor Establishment Program discussed." 2018. Montsame. (December 12). https://montsame.mn/en/read/174103(검색일: 2019. 3. 10).

"Russian and Mongolian Officials discuss development of Altangulag free trade zone." 2018. The UB Post. (April 18). https://www.pressreader.com/mongolia/the-ub-post/20180418(검색일: 2019. 3. 20).

"Russia: Ulaanbaatar Railways to become part of the Russia-Mongolia-China economic corridor." 2018. 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s. (February 20). https://uic.org/com/uic-e-news/585/article/russia-ulaanbaatar-railways-to-become-part-of-the-russia-mongolia-china-7558?page=iframe_enews(검색일: 2019. 3. 12).

"Three countries hold meeting on economic corridor establishment." 2017. Montsame. (September 5). https://montsame.mn/en/read/131358(검색일: 2019. 3. 10).

"What does the China-Mongolia-Russia Economic Corridor mean for Mongolia?" 2018. Belt&Road Advisory. (September 30). https://beltandroad.ventures/beltandroadblog/china-mongolia-russia-economic-corridor (검색일: 2019. 3. 11).

"Xi, Putin and Battulga Meet in June, Qingdao." 2018. Naanga. (April11). https://naanga.com/2018/04/11/xi-putin-and-battulga-meet-in-june-qingdao/ (검색일: 2019. 3. 15).

"2019 Silk Way Rally to take Russia-Mongolia-China Route." 2018. montsame. (September 25). https://www.montsame.mn/en/read/165576(검색일: 2019. 4. 7).

[기타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

교육통계서비스(KESS). https://kess.kedi.re.kr/index(검색일: 2019. 5. 23).

대외경제협력기금. https://www.edcfkorea.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4002004001(검색일: 2019. 5. 22).

북방경제협력위원회. http://www.bukbang.go.kr/(검색일: 2019. 4. 30).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motie/py/sa/investstatse/investstats.jsp(검색일: 2019. 5. 23).

코이카(KOICA) 통계조회서비스. http://stat.koica.go.kr/(검색일: 2019. 5. 22).

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tat.kita.net(검색일: 2019. 5. 2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검색일: 2019. 5. 22).

CAREC. CAREC 2030 Strategic Framework. https://www.carecprogram.org/?page_id=32(검색일: 2019. 3. 11).

Central Bank of Mongolia. https://www.mongolbank.mn/eng/(검색일: 2019. 3. 15, 4. 2).

IMF. WEO database.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8/01/weodata/index.aspx(검색일: 2019. 4. 2).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Mongolia Water Compact. https://www.mcc.gov/where-we-work/program/mongolia-water-compact(검색일: 2019. 3. 31).

Mongoli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몽골 통계정보서비스). http://www.1212.mn/(검색일: 2019. 3. 17).

UN Comtrade(검색일: 2019. 4. 3).

World Bank. Data. https://data.worldbank.org/(검색일: 2019. 3. 17).

_____. The Logistics Performance Index. https://lpi.worldbank.org/(검색일: 2019. 3. 17).

부록. 한·몽 경제협력 현황

가. 교역

■ 2018년 기준 한·몽 교역액은 약 3억 3,500만 달러로 한국 전체 교역액의 0.03%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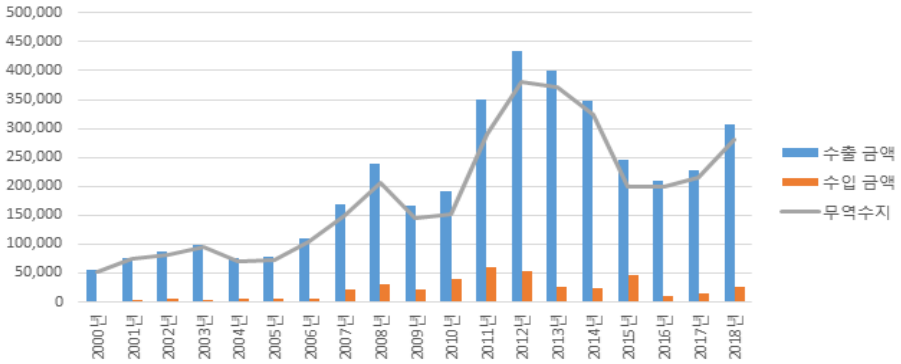
- 한·몽 교역은 2012년 최대치인 4억 8,700만 달러를 달성했으나, 이후 몽골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임.

○ 2013년부터 한국의 대몽골 수출이 감소했으며, 이는 몽골 경제 침체 및 투그릭 화폐가치 약세로 인한 구매력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의 대몽골 무역은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무역수지 흑자구조로 2018년에 2억 8,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 몽골은 한국의 78위 수출국이자 119위 수입국, 한국은 몽골의 8위 수출국이자 4위 수입국임.[54]

부록 그림 1. 한·몽골 교역 현황(2000~18)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검색일: 2019. 5. 22).

■ 한국의 대몽골 주요 수출품은 승용차, 화물자동차, 중장비 등이고 수입품의 대부분은 광물과 직물임.

부록 표 1. 한국의 대몽골 주요 수출입 품목(2018년)

(단위: 천 달러, %)

	수출				수입			
	HS코드	품목	금액	비중	HS코드	품목	금액	비중
1	87	일반차량	45,127	14.7	26	광(鑛)·슬래그(slag)·회(灰)	13,056	48.5
2	84	보일러, 기계류	44,823	14.6	61	의류(편물제)	6,295	23.4
3	27	광물성 연료에너지	26,002	8.5	62	의류(편물제 외)	2,131	7.9
4	88	항공기	21,053	6.8	25	토석류, 소금	1,383	5.1
5	85	전자기기, TV, VTR	20,049	6.5	05	기타 동물성 생산품	1,147	4.3
6	24	담배	18,254	5.9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485	1.8
7	90	광학, 의료측정, 검사, 정밀기기	15,967	5.2	16	육, 어류 조제품	387	1.4
8	33	향료 화장품	12,897	4.2	51	양모, 수모	284	1.1
9	30	의료용품	10,351	3.4	84	보일러, 기계류	274	1.0
10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9,894	3.2	49	서적, 신문, 인쇄물	274	1.0
기타				27.1	기타			4.4

주: HSK 2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검색일: 2019. 5. 22).

54) 한국에 대한 몽골의 순위는 한국무역협회, 몽골에 대한 한국의 순위는 몽골 통계정보서비스 참고(2018년 기준, 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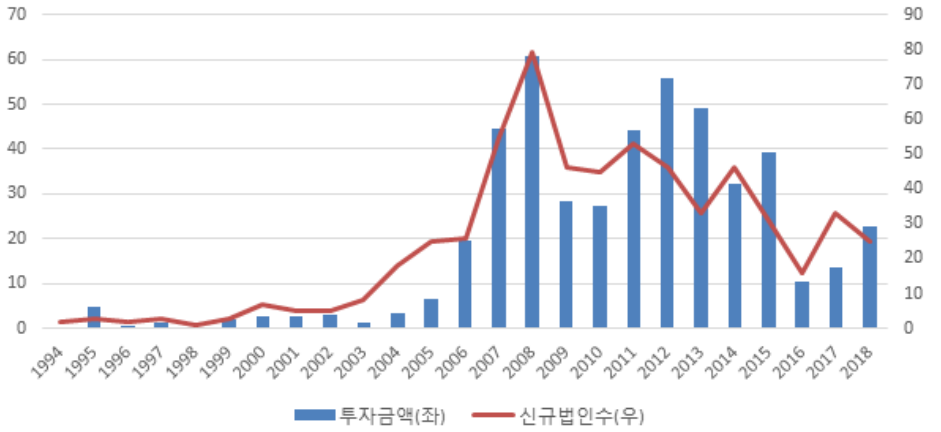
나. 투자

■ 1994~2018년 한국의 대몽골 직접 투자 누적액은 4억 7,6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전체 해외투자액의 0.1%를 차지함.

- 2018년 투자금액 기준 몽골은 한국의 54번째 투자대상국이며, 한국의 주요 투자 분야는 광업,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임.

부록 그림 2. 한국의 대몽골 해외직접투자 추이(1994~2018년)

(단위: 백만 달러, 개)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9. 5. 22).

- 2019년 1분기 기준 몽골의 대한국 투자 누적액은 6,000만 달러이며, 업종별로 도·소매(유통), 숙박·음식점이 대부분을 차지함.[55]

다. 교류·협력

■ 오는 2020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몽골과 한국의 교역, 투자 등 경제교류는 미미한 수준이나, 양국의 역대 대통령이 모두 임기 중에 상호 방문하는 등 비교적 밀접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음.

- 한국은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2011년 체결한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과 양국 대통령의 상호 방문을 제안하는 등 몽골과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함.

■ 한국은 2008년 이래로 몽골을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유무상 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ICT 기반 공공행정 개선, 도시개발, 농업개발 부문을 중점 협력 분야로 추진함.

- 1991~2017 KOICA 무상원조 누적액은 2,500억 원이며, 주요 지원 분야는 기술환경에너지, 공공행정, 교육 분야로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현대화, 광해관리 역량 강화, 난방 및 온수공급 시스템 구축 등의 프로젝트와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 농업개발, 전자정부 구축, 울란바토르시 지형도 제작 컨설팅 등을 실시함.[56]
- 대몽골 EDCF 승인금액은 4,500억 원(1987~2018 누적), 집행금액은 1,660억 원이며, 국립의료원 건설사업, 긴급구난정보망 구축사업, 버스 교체사업, 교통망 구축사업, 정부통신망 현대화사업, 울란바토르 대기개선 프로그램, 화

55)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검색일: 2019. 5. 23).
56) KOICA 통계조회서비스(검색일: 2019. 5. 22).

력발전소 건설사업 등이 추진됨.[57]

- 이낙연 총리는 2019년 3월 몽골을 방문하고 오흐나 후렐수흐(Ukhnaagiin Khürelsükh) 총리와 몽골 대기환경 개선 및 보건협력 등 분야에서 개발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을 논의한 바 있음.

■ **한·몽 양국 방문객, 유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인적교류가 활발한 편으로, 최근 항공 운항이 확대되고 관련 제도도 보완되면서 교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한국인 방몽객은 8만 6,013명, 몽골인 방한객은 11만 8,783명으로 최근 2~3년 사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부록 표 2. 한·몽 양국 국민 상호 방문 현황(2010~18년)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한국인 방몽	42,551	44,810	45,489	46,498	47,084	48,979	59,514	76,637	86,013
몽골인 방한	41,889	49,849	63,279	66,489	64,096	81,201	82,780	108,139	118,783

주: 2018년 몽골인 방한객은 통계연보 발간 전으로 통계월보 수치를 합산하였음.
자료: 한국인 방몽은 몽골 통계정보서비스, 몽골인 방한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참고(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23).

○ 2018년 기준 한국 내 몽골 유학생은 6,768명(고등교육기관)으로 중국, 베트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이며, 2015년(3,138명) 대비 116% 증가함.[58]

- 2019년 1월, 아시아나항공이 추가로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을 확보하면서 대한항공과 복수취항하게 되었으며, 에어부산이 부산-울란바토르 구간에 대한 추가 운수권을 확보하면서 항공 운항을 확대하게 됨.
- 2018년 10월, 한국은 몽골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을 전문직 종사 직군으로 확대했으며, 몽골은 한국인에 대한 장기비자 발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실시하는 등 비자 발급과 관련한 편의제도를 개선한 바 있음.

57)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통계보고서(검색일: 2019. 5. 22).
58) 교육통계서비스(KESS), 「간추린 교육통계(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검색일: 2019. 5. 23).